

2010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2			
----	--	-------	--	--	--	--	---	--	--	--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가 수업에 활용되었다고 할 때, 장군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수업 주제 : 그릇된 판단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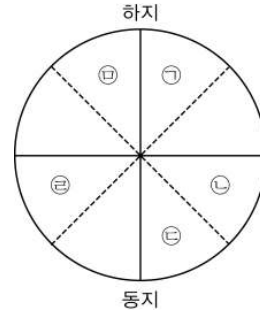
ㄱ. 일시적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
 ㄴ. 겉모습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
 ㄷ. 원칙을 혼동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ㄹ.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
 ㅁ. 모순되는 두 원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 (물음) 강연자가 제시할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제 막 입사한 자네가 뭘 알겠나?
 ②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해 주세요.
 ③ 내 생각이 틀리다니, 지금 내게 도전하는 건가?
 ④ 내가 부장이니 내 지시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⑤ 내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3. (물음) 아들이 '우수'와 '경칩'을 표시할 자리로 알맞은 것은?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 [4 ~ 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진행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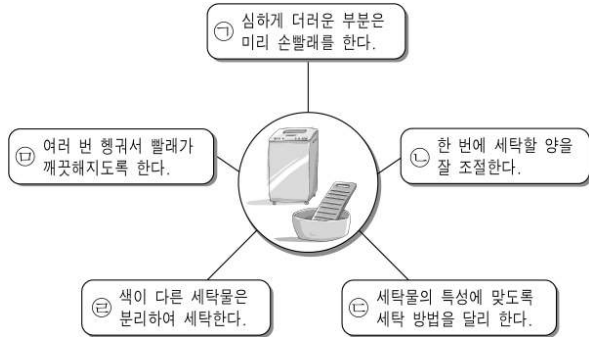
- ① 비유적 표현으로 대담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경험을 들어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③ 청취자 집단의 특성에 맞게 대담을 이끌고 있다.
 ④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⑤ 설문 조사를 언급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5. (물음)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반응이 아닌 것은?

- ①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근육이 약화되는군.
 ② 허리 통증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겠군.
 ③ 운동을 하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④ 허리 통증을 느낀다면 이미 허리가 안 좋아진 것이로군.
 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군.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세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연상하고 있다. ㉠ ~ ㉥에서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은 기초 개념을 미리 공부한다.
 ② ㉡ → 학습의 양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③ ㉢ → 과목의 특성에 맞게 학습 방법을 달리한다.
 ④ ㉣ → 이해하기 힘들 경우 참고 서적이나 인터넷을 활용한다.
 ⑤ ㉤ →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학습한다.

7. 친구에게 전달할 쪽지를 쓰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의도 :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려고 함.
 ○ 표현 : 비유와 대구를 활용함.

- ① 거친 새벽 지나면 아침 오듯이
 힘든 시간 지나면 미소 지어리.
 ② 지금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말끔하게 해결될 거야.
 ③ 친구야 우린 오랜 벗이잖아
 네가 아니면 난 오아시스 없는 사막
 ④ 오늘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던 너
 꿈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너
 ⑤ 눈물은 싫어 좋게 생각해
 많이 어렵겠지만 햇살처럼 웃어봐.

8. <보기>의 개요를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제문 : ○○ 도서관을 활성화하자.

I. 서론 : ○○ 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

II. 본론

1. ○○ 도서관의 현황
 가. 대출 권수 및 이용자 감소
 나. 열악한 시설 및 환경
 다. 도서관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 ㉠
2. ○○ 도서관 활성화의 의의 ㉡
 가. 이용자들의 독서 성향과 동떨어진 도서 및 자료
 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 부족
 다. 도서의 열람과 대출에 국한된 운영 방식
 라.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와 관심 부족
3. ○○ 도서관 활성화 방안 ㉢
 가. 도서 및 자료 확충 ㉣
 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 확보
 다.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라. 도서관의 유용성에 대한 홍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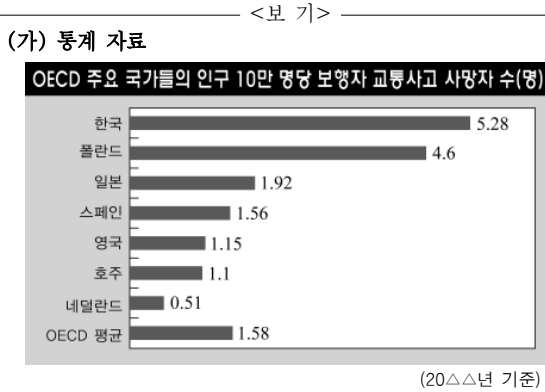
III. 결론 : ○○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 촉구

- ① ㉠은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관련성이 적으므로 삭제한다.
 ②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고친다.
 ③ ㉢의 하위 항목에는 'II-2-다'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열람 시간 연장 및 대출 권수의 확대'를 추가한다.
 ④ ㉣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독서 성향을 고려한 도서 및 자료 확충'으로 고친다.
 ⑤ ㉤은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II-3-다'와 통합한다.

9. 밑줄 친 부분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기가 어렵다. : 수선(修繕) ... ①
 ○ 국회는 잘못된 법을 고치기로 했다. : 개정(改正) ... ②
 ○ 잘못 기록된 내용을 바르게 고쳤다. : 정정(訂正) ... ③
 ○ 동생의 고장 난 자전거를 고쳤다. : 수리(修理) ... ④
 ○ 이 병원은 위장병을 잘 고친다. : 치료(治療) ... ⑤

10.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권리 신장 방안’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 신문 보도 및 보고서

ㄱ.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문 보도>

ㄴ. 보행권 침해 사례 : 횡단보도 양끝은 물론 보도까지 점령한 불법 주차가 단속되지 않은 경우, 보도 위의 간판이나 불법 시설물이 단속되지 않은 경우 등. <관련 보고서>

(다) 인터뷰

ㄱ. 이번 호주 여행에서 그곳의 운전자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경찰이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선에서 차분하게 기다리더군요. <시민>

ㄴ. 관련 법규에서는,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차량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만 일시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의사만 있어도 일시 정지하도록 법규를 고쳐야 합니다. <시민단체 간사>

- ① (가)와, (나)의 ㄱ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② (가)와, (다)의 ㄱ을 참고하여, 보행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고, 보행권에 대한 그 나라 운전자들의 인식을 소개해야겠어.
- ③ (나)의 ㄱ과 (다)의 ㄴ을 활용하여,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 ④ (나)의 ㄴ과 (다)의 ㄱ을 참고하여, 보행권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원인이 당국의 안이한 관리 감독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어.
- ⑤ (나)의 ㄴ과 (다)의 ㄴ을 활용하여, 보행권에 관한 법규 정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해야겠어.

11. 자연물과 관련된 전설을 조사하라는 과제를 받아 정리한 글이다. 고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산과 들에 핀 꽃 중에는 애달픈 ㉠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머느리밥풀꽃도 그 중 하나이다. 머느리밥풀꽃은 붉은 입술이 하얀 밥알 두 알을 물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 얽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마을 가난한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아버지 생신이 되어 머느리는 귀한 쌀을 한 줌 내어 밥을 지어 드렸다. 머느리는 솥뚜껑에 붉은 밥알 두 알을 보고는 얼른 입에 넣다가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다. 머느리가 부엌일을 하며 늘 무언가를 감추었다 먹는 것으로 ㉣ 잘못 오해한 시어머니는 그길로 머느리를 내쫓아 버렸다. 결국 머느리는 길가에서 죽었다. ㉤ 미처 잘못을 깨달은 시어머니가 시신을 거두어 묻어 주었는데, 그 무덤에서 하얀 밥알을 입에 문 것 같은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머느리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머느리밥풀꽃’이라고 이름 붙였다.

- 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은 ‘사연이’로 고쳐야겠어.
- ② ㉡에는 ‘이 꽃에’를 보충하여 문맥을 자연스럽게 해야겠어.
- ③ 전설 내용이 구분되도록 ㉢에서 문단을 나누는 게 좋겠어.
- ④ 의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에서 ‘잘못’을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미’로 바뀌어야겠어.

12. <보기>의 ‘어떤 체언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언들은 특정한 조사와만 결합한다.

- ① 그는 사소한 실수로 야기될지 모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 ② 그 투수는 무릎 부상의 악재를 딛고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 ③ 강연자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었다.
- ④ 그녀는 다가와 남자처럼 악수를 청했고, 나는 일벌결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 ⑤ 종갓집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네.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칠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나)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떼 왁자히 내려앉는 대숲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잎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편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A]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굵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짜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내 마음의 고향 6 - 초설」 —

(다)

한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 내 꿈아.
만리요양(萬里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선용(鶴駕仙容)*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풍설(風雪)』 섞어 친 날에 묻노라 **북래사자(北來使者)***아

[B] **소해용안(小海容顏)***이 얼마나 추우신고

『고국(故國)의 못 죽는 고신(孤臣)이 눈물겨워 하노라

<제2수>

구중(九重) 달 밝은 밤에 **성려(聖慮)*** 일정* 많으려니

이역풍상(異域風霜)에 학가(鶴駕)인들 잇을쏘나.

이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나 있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없으니 그 아니 좋을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시름겨워 하노라.

<제8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만리요양 : 만리나 떨어진 청나라 요양.

* 학가선용 : 신선 같은 얼굴. 학가(鶴駕).

* 북래사자 : 북에서 온 사자.

* 소해용안 : 왕세자의 얼굴.

* 성려 : 임금의 근심.

* 일정 : 정말.

* 억만창생 : 백성들.

* 구렁 :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다) 모두 부정적 상황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가), (나), (다) 모두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 ③ (가)와 (나)에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타난다.
- ④ (가)와 (다)는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⑤ (나)와 (다)에는 계절적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나타난다.

14.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고향'은 심리적 공간으로, [B]의 '고국'은 현실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A]의 '고향'은 '어린 저녁 무렵'과 관련지어, [B]의 '고국'은 '풍설 섞어 친 날'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 ③ [A]의 '고향'은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이미지로, [B]의 '고국'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이미지로 그려져 있다.
- ④ [A]의 '굵은 눈물'에서 '굵은'과 [B]의 '눈물겨워 하노라'의 '겨워'는 정서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 ⑤ [A]의 '눈물'은 '까닭 모를'과 관련하여, [B]의 '눈물'은 '고신'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15.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로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처음과 끝을 동일한 표현으로 제시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16. (가)를 <보기>와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견우성과 직녀성에 얽힌 설화 ‘견우와 직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녀는 옥황상제의 손녀로 목동인 견우와 혼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한 뒤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샀다. 옥황상제는 그 벌로 두 사람을 떨어져 살게 하고, 일 년에 한 번 칠월 칠석(七月七夕)에만 만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막아 만날 수 없게 되자, 까마귀와 까치들이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 주었다.

- ① 설화의 주인공인 견우와 직녀가 (가)에서는 각각 화자와 청자로 설정되었군.
- ② 설화에서는 까마귀와 까치의 도움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가)에서는 주체들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군.
- ③ 설화에서는 은하수가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지만 (가)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을 심화하는 기능도 하고 있군.
- ④ 설화에서는 이별이 두 사람에게 내려진 벌이지만 (가)에서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군.
- ⑤ 설화에서는 견우와 직녀 간의 갈등이 이야기의 중심이지만 (가)에서는 그 갈등의 해소가 시상의 중심이 되었군.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은 고향 마을의 풍경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② ‘여름날의 고요 적막한 뒤란’은 ‘후두둑 빗방울’과 함께 계절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③ ‘서늘한 뜨거운 기적소리’에는 감각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④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의 정적 이미지는 ‘흰웃자락’의 역동적 이미지와 대비되고 있다.
- ⑤ ‘그 어둑한 신작로 길’은 ‘싸락눈’의 촉각적 이미지와 함께 화자의 심경을 드러낸다.

18.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병자호란 직후에 지어진 시조이다. 병자호란 후 당시의 왕세자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에 붙잡혀 갔는데, 작품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통한 심정이 담겨 있다.

- ① ‘만리요양’은 병자호란 이후 왕세자가 잡혀간 공간이다.
- ② ‘북래사자’는 왕세자의 귀환을 알리려고 온 신하이다.
- ③ ‘성려’는 나라와 백성들을 염려하는 임금의 마음을 가리킨다.
- ④ ‘이역풍상’은 왕세자의 고난의 삶을 뜻한다.
- ⑤ ‘구렁에 나 있는 풀’은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부각한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 예술의 원재료인 ‘소리’는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진다. 이 ‘소리’를 잡아서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녹음과 복제 기술이 출현하고 발달함에 따라 음악 예술은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녹음과 복제 기술이 출현하기 이전의 음악 감상은 결혼, 축제와 같은 의식이 행해지는 공간이나 연주회장과 같은 특정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녹음과 복제 기술이 출현하면서 일상적 공간 곳곳에서 음악 감상이 가능해졌다. 음악 감상이 ‘비일상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골라 듣거나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도 가능해졌다.

① 녹음과 복제 기술은 연주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녹음과 복제 기술 덕분에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한 곡을 듣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를 반복해서 들으며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곡 해석법을 발견하거나 개발하기도 하였다.

녹음과 복제 기술의 등장으로 음악을 만드는 방법과 과정도 다양해졌다. 녹음과 복제 기술이 등장한 후 작곡가들은, 같은 곡을 여러 번 들을 수 있다는 음반의 특성을 의식하여 반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곡하였다. 근래에는 음악을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바꾸는 기술이 개발되어 작품을 나누고 섞고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낯선 곡은 계속적 반복을 통해 친숙한 음악으로, 친숙한 곡은 디지털 조작을 통해 낯선 음악으로 변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음악이 대량으로 복제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대량 생산된 복제품은 예술 작품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가치를 상실케 하고 예술적 전통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 복제품은 자신이 생겨난 환경에 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예술적 전통을 만들어 낸다. 최근의 음악 환경은 IT 기술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MP3로 대표되는 복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그에 따라 음악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무슨 과가 지망이냐?”

“법과를 할까 보아요.”

덕기는 법과 중에도 형법에 주력을 써서 장래에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형사 전문의 변호사는 아니 되더라도 어쨌든 조선 형편으로는 그것이 자기 사업으로 알맞을 것 같았다.

병화에게 언제인가 그런 말을 하니까,

“흥, 자네는 **전선(戰線)의 후부**에 있어서 적십자기(旗) 뒤에 숨어 있겠다는 말일세그려?”

하고 비웃은 일이 있었다.

“군의총감(軍醫總監)이 되겠다는 말인가?”

병화는 이런 소리도 하였다.

[B] “군의총감이 아니라 **일 간호졸(看護卒)**이 되겠다는 말일세.”

덕기가 이렇게 대거리를 하니까,

“간디도 변호사 출신이었다!”

하고 짓궂이 놀리었다.

어쨌든 덕기는 무산운동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냉담히 방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제일선에 나서서 싸울 성격도 아니요 처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일 간호졸 격으로 변호사나 되어서 뒷일이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덮어놓고 크게 되겠다는 공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책상물림의 뒷방 서방님**으로 일생을 마치기도 싫었다. **제 분수**대로는 무어나 하고 싶었다.

“법과보다는 경제과나 상과를 하면 어떻겠니?”

부친은 아들을 실업 방면으로 내보내고 싶어하는 말논치였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대로의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는 셈속이다.

“경제과는 해도 좋지만 상과는 싫어요.”

여기에도 덕기는 몽롱하나마 제 속다짐이 있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좋지…….”

부친은 아무쪼록 아들의 말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이 가벼이 대답을 해 집어치운다.

— 염상섭, 「삼대」 —

* 시탕 : 아버지의 병환에 약시중을 드는 일.

23. [A]와 관련하여 ㉠ ~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덕기가 ‘제주도 있거니와 철도 일찍’ 들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 ② ‘부친이 아들의 공부에 대하여 묻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으로 보아, ㉢은 ㉠와는 달리 의외의 물음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 ③ ㉢은 ‘덕기가 이만치나 되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은 덕기가 ‘퐁퐁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데서 나온 대답으로 볼 수 있다.
- ⑤ ‘부친에게 허락을 구하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던 것으로 본다면, ㉠은 평상시와는 다른 태도라 할 수 있다.

24. <보기>는 ‘덕기’가 ‘병화’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B]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나 같은 사람도 자네 옆에 있어서 해될 것은 없네. ……
이왕이면 한 걸음 더 나서서 자네와 한 길을 밟지 못하느냐고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견해가 따로 있고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피하지 못할 땀 길이 있으니까 결코 비겁하다고 웃지는 못할 것일세.

- ① ‘변호사’는 <보기>에서 덕기가 말하는 ‘피하지 못할 땀 길’의 하나에 해당한다.
- ② ‘전선의 후부’를 언급할 때의 병화의 비웃음은, <보기>에서 덕기가 ‘한 길을 밟지 못하느냐고 웃을지 모르지만’이라고 쓴 것과 관련이 있다.
- ③ 덕기가 말한 ‘일 간호졸’은 <보기>의 ‘한 걸음 더’ 나서지 못하는 덕기의 처지와 관련이 있다.
- ④ ‘책상물림의 뒷방 서방님’으로 사는 삶에 관하여 <보기>에서 덕기는 ‘결코 비겁하다고 웃지는 못할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 ⑤ ‘제 분수’는 <보기>의 ‘나와 같은 처지’에서 비롯한 ‘내 견해’에 해당한다.

22.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덕기’는 ‘상훈’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
- ② ‘조부’와 ‘상훈’ 사이, ‘서조모(수원집)’와 ‘모친’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 ③ ‘덕기’는 병석에 누운 ‘조부’의 상황을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 ④ ‘상훈’은 그의 부친이 자신을 제치고 ‘덕기’에게 상속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⑤ ‘상훈’은 ‘서조모(수원집)’가 ‘조부’의 재산을 노리고 모종의 일을 꾸민다고 생각하고 있다.

25. ㉠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부친’에서 ‘상훈’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주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의 성격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 ② 작중 인물의 생각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드러낸다.
- ③ 작중 인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판적 태도로 변경한다.
- ④ 작품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작중 인물을 직접 평가한다.
- ⑤ 작중 인물에 대한 작품 밖과 안의 시각을 대비한다.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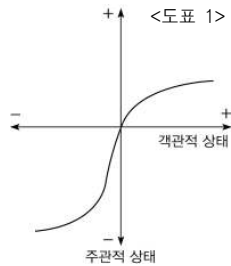
(가) 올림픽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은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이 더 어두운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심리적인 만족도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양상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택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고르는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 영향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나) 다음의 두 경우는 객관적 상태와 심리적 만족도가 상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입장료가 만 원인 음악회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그래도 당신은 만 원짜리 표를 사서 음악회를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① 90퍼센트가량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반면에 다음의 경우는 양상이 달라진다. ‘당신은 음악회에 가려고 만 원짜리 표를 구입했다. 그런데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다시 만 원을 내고 표를 사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응답자들의 50퍼센트 미만이 표를 다시 사겠다고 대답한다.

(다) 이처럼 결과가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것임에도 심리적 반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두 경우의 차이점은 ‘심리적인 틀’을 만드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음악회를 보게 되면 전자와 후자 모두 이만 원이 들겠지만, 전자의 경우 음악회라는 항목에 배당된 심리적 금액은 만 원이며, 잃어버린 만 원은 음악회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음악회라는 항목에 이만 원이라는 금액이 배당된 것이다.

(라) 심리적 틀 만들기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지를 일반화한 이론이 이른바 ‘전망 이론’이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평축을 따라 나타나는 것은 상황의 객관적 상태다. 수평축의 양의 수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음의 수치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수직축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리한 상황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낸다. 심리적 반응이 상황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상태의 상관성은 교차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것은 곡선으로 나타나 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과 수직축의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의 변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은, 심리적 반응이 상황의 객관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 이 그래프에서 수평축과 수직축이 교차하는 중립점은 자신에게 유리한가 손해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중립점은 심리적으로 유동적이며, 선택의 상황에서 심리적인 중립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선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도 달라진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더 유리한 지점 혹은 더 불리한 지점에 심리적인 중립점을 둘 수 있으며, 그 중립점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형성된다. 예컨대 자신의 것이 되기 전보다 자신의 것이 된 다음에 그 물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것은 심리적 중립점이 오른쪽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26. 위 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택의 어려움을 조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한 글이로군.
- ② 선택의 과정에 미치는 심리적 작용의 영향을 설명한 글이로군.
- ③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한 다양한 선결 조건을 제시한 글이로군.
- ④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 줄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이로군.
- ⑤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통해 삶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강조한 글이로군.

27.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사례를 제시하며 중심 화제로 연결하고 있다.
- ② (나) : 중심 화제와 관련된 설문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다) : 제시된 설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 ④ (라) : 중심 화제와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전체 내용을 종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8. 위 글과 관련하여 <도표 1>을 통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수평축과 수직축의 의미로 볼 때, 높은 지위로 승진하여 기분이 좋은 상태는 수평축과 수직축 모두 양(+)의 위치에 해당하겠군.
- ② 중립점의 의미로 볼 때, 같은 일을 만 원에 하려는 사람의 경우는 그보다 많은 액수를 기대하는 사람의 경우보다 중립점이 왼쪽에 위치하겠군.
- ③ 수평축과 수직축의 양(+)의 위치에서 그래프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아, 월급이 두 배로 오를 때마다 월급에 대한 만족도는 그 이상으로 늘어나겠군.
- ④ 수평축과 수직축의 음(-)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그래프의 양상으로 보아, 만 원을 잃는 것에 비해 이만 원을 잃는 것에 의한 상실감이 꼭 두 배인 것은 아니겠군.
- ⑤ 수직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그래프의 변화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아, 길거리에서 주운 돈 만 원보다 길을 가다 잃어버린 돈 만 원이 더 크게 느껴지겠군.

29. ㉠의 ‘-가량’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 ① 한 시간쯤 지난 후에 그가 왔다.
- ② 밥은커녕 물조차 먹을 수 없었다.
- ③ 너마저 나를 못 믿겠다는 말인가?
- ④ 그녀는 개나 고양이를 매우 좋아한다.
- 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상표는 소중한 자산 가치로 인정받고 있지만, 상표가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상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서 ‘상표권’과 관련한 상표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상표 보호와 관련한 이론은 크게 혼동 이론과 희석화 이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식별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에 근거해서 혼동 이론은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상표권자의 상표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위 ‘짜퐁’에 해당하는 동종(同種) 상품의 경우, 상표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종류가 달라서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표권이 침해받지 않은 것이므로 그 행위를 ㉠ 규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가방이 큰 인기를 끌어 ‘아사달’이 유명상표가 되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아사달’이라는 상표는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미지를 제고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사달’ 구두를 만들어 팔 경우, ‘아사달’ 구두는 ‘아사달’ 가방의 상표를 ㉡ 침해한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 혼동 이론에서는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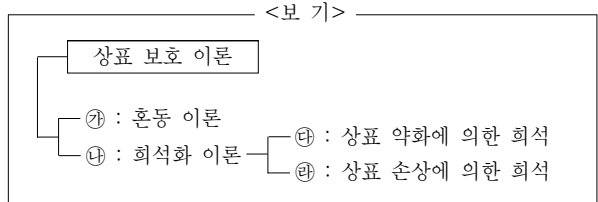
[A] 때문이다.

반면 희석화 이론에서는 비록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이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본다. 위의 경우에 ‘아사달’ 가방을 구입한 소비자는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아사달’ 구두를 구매한다. 이때 ‘아사달’ 구두의 품질이 형편없거나 조잡할 경우 ‘아사달’ 가방 자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아사달’이라는 상표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고 상표 가치가 심각하게 ㉢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아사달’ 가방의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도 ㉣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희석화 이론은 유명 상표의 이미지, 광고 선전력, 고객 흡입력 등이 이종(異種) 상품에 흡수되어 상표의 식별력이 희석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희석화 현상은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오염시키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상표 약화에 의한 희석’, 후자는 ‘상표 손상에 의한 희석’이라고 한다. ㉤ ‘상표 약화에 의한 희석’은 이종(異種) 상품에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어떤 상표가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연상하게 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 손상에 의한 희석’은 타인이 유명 상표를 부적절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팽창하던 1920년대에 처음 등장한 희석화 이론은, 초기에 혼동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상표 보호의 공간을 흔드는 이론으로 평가 절하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이론은 미국의 판례법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면서 상표 보호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에 기초를 제공하여 부당한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30.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품의 출처보다 이미지를 중시한다.
- ② ㉦와 ㉧ :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③ ㉧ : 상표 보호를 위한 법리적 해석의 기초가 되었다.
- ④ ㉨ :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 ⑤ ㉩ : 상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31.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사달’ 구두와 ‘아사달’ 가방은 상표에 차이가 나기
- ②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 가방의 판매를 신장시킬 수 있기
- ③ ‘아사달’ 구두가 ‘아사달’ 가방의 고객 흡입력을 높이고 있기
- ④ ‘아사달’ 가방과 달리 ‘아사달’ 구두는 상표 보호 대상이 아니기
- ⑤ ‘아사달’ 구두와 ‘아사달’ 가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보지 않기

32.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명한 게임 ‘◆◆◆’을 과자 제품의 상표로 등록한 경우
- ② 유명 신발업체가 생산한 ‘○○○’을 다른 신발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 ③ 유명 음료수회사의 상표인 ‘●●●’을 안경점의 상표에 사용하는 경우
- ④ 유명 보석상점인 ‘▲▲▲▲’와 유사한 이름을 문방구의 상표로 무단 사용한 경우
- ⑤ 유명 전자회사인 ‘▼▼▼▼’와 유사한 인터넷쇼핑 사이트 ‘www.▼▼▼▼.com’를 만든 경우

33. ㉠ ~ ㉣를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환경 보호를 위하여 비닐 봉투의 사용이 규제되어 왔다.
- ② ㉡ : 심한 포격으로 전과가 침해되어 통신이 두절되었다.
- ③ ㉢ : 그가 뜻 없이 던진 말로 인해 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 ④ ㉣ : 김 부장을 배제하고 일을 하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 ⑤ ㉥ : 공주의 철없는 행동으로 왕의 위엄은 손상을 입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121. 해순의 집 안방(밤)

(전략)

어머니 : 애, 나도 지금까지 수절해 왔다만 그것처럼 참기 어려운 일도 없느니라..... 하긴 말이 있을 때 훌쩍 떠나는 게 편킨 하지.

해순 :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카는데, 이걸 가지고 상수를 따라 가져라.

끼고 있던 은반지를 빼서 해순의 손에 꼭 쥐어 주며

어머니 : 애야, 상수만한 사람도 쉽지 않을 기라.

해순 : 어머니.....

그만 어머니의 무릎에 엎드려 서럽게 느껴 운다.

어머니 : 상수야 진짜 바닷놈이 아니래서 마음이 놓인다. 끔찍이도 예편네를 귀여워했다니까 니도 귀염받고 살 수 있을 기다.

어머니 : 객지에 들어온 뜨내기가 돼서 게름직하다만은..... 바닷놈이 아닌데..... 그만하면 됐지.....

S# 122. 동(同) 밖(밖)

마루에 앉은 성철이도 눈물을 흘리며 방 안 얘기를 듣는다.

어머니(E) : 아가야! 성구 아버지가 안 계신데 널 맞으들었구나.....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석 달을 못 채우고 헤어지는구나.....

해순(E) : 어머니 안 가요. 전 안 갑니다. 어.....

어머니(E) : 가야 한다. 네가 잘 되는 길을 내가 왜 막나. 네 시동생 성철이도 형수를 끔찍이도 생각했느니라.....

성철이도 눈물을 흘린다.

S# 123. 다시 방 안(밤)

아직도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는 해순

어머니 : 그만 해 뒤라..... 세월이 달라졌으니까 새서방 찾아가게 하는 게 조금도 흠이 못 된다..... — O · L —

S# 124. 해순의 방(밤)

① 어머니가 준 은반지를 만지며 시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환청되는 파도 소리. 화면에 파도가 덮이면서 해순의 회상이 시작된다.

(중략)

S# 128. 축항(築港)

해순 모가 떠나는 날이다. 성구와 해순이가 전별을 나왔다. 어머니도 나왔다.

어머니 : (해순 모에게) 사돈덕, 아무 걱정 마시소..... 해순이는 내 며느리가 아닝고.

해순 모 : 고맙습디.....

성구 : 장모님. 그냥 여기서 같이 살지 않으시구.....

해순 모 : 아닐세..... 해순아, 나 좀.....

해순이를 뱃머리에 데리고 가서

해순 모 : 이런 말은 안 하고 가려고 했다만..... 해순아 너 하나 기르느라고 이십 년 동안 고향땅을 밟지 못했구나..... 이젠 마음 놓고 간다.

해순 : 그럼, 우리도 집이.....

해순 모 : (눈물을 흘리며) 그래, 우리도 집이 있었다..... 난 여가 와서 어찌다가 너를 낳았구나..... 어린 너를 그냥 두고 떠날 수도 없었고..... 데리고 갈 수도 없었던 거야.

해순 : (놀라면서) 어무이.....

해순 모 : 용서해 달라는 애기밖에 없구나..... 해순아, 넌 이제 가장을 섬기는 몸이니, 아예 애미 생각은 마라!

해순 : 어무이!

해순 모의 가슴에 안긴다.

해순 모 : (해순이를 밀어내며) 몸줄 애미라고 욕해도 좋으니 애미 찾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넌 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살아야 한다.....

눈물을 닦으며 급히 배에 오른다. 배가 밀려 나간다.

해순 : 어무이! 어무이에!

마구 소리치는 해순. 떠나는 배 위에서 들어가라는 듯 손짓을 하는 해순 모

해순 : 어무이에, 가지마소. 여기도 바다가 아입니까? 가지마소..... 어무이, 어.....

① 그대로 축항에 주저앉아 우는 해순의 모습 위로 다시 한번 파도가 D · E* 된다.

S# 129. 해순의 방

회상에서 깨어나는 해순. 깊은 한숨을 내뿜는다. 창문이 점점 밝아온다.

S# 130. 노승이 있는 곳(새벽)

아침 안개가 흐르고 있다. 상수가 보파리를 깔고 앉아 해순을 초조하게 기다린다. 해순이 온다.

상수 : (반갑게) 해순이 잘 왔어, 잘 왔어. 어서 떠나자.

해순 :

상수는 해순의 허리를 안아주며 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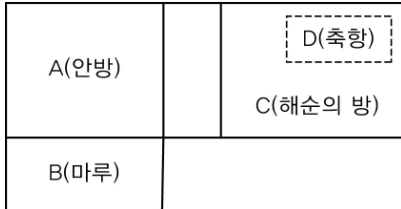
— 오영수 원작 · 신봉승 각색, 「갯마을」 —

*D · E : 이중 노출.

34. ①과 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대비하여 현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③ 동일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상의 시작과 끝을 대응시키고 있다.
- ④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삶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상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35. S#121 ~ S#129를 영상화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하고 있다. 이 장면들의 공간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분리된 공간이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등장하는 공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② A는 설득, C는 고뇌와 결단의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분위기를 잘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 ③ 인물들의 관계로 보아 B는 C와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공간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 ④ C는 현재의 공간이지만 과거에 속하는 D와 넘나든다는 점을 잘 살려 내야 합니다.
- ⑤ 장면의 흐름을 보았을 때 A→B→A→C→D→C의 순서로 편집해야 합니다.

36.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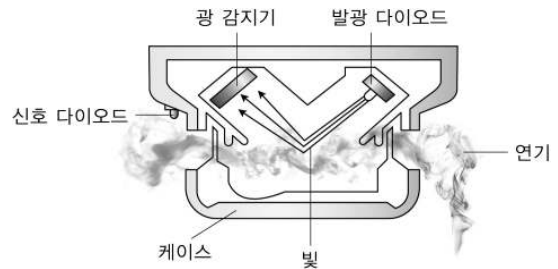
이 작품은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삶을 그리고 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는 생명이 순환하는 자연의 세계이다. 또한 이 작품은 주인공 해순이 바다에서 성구를 잃은 뒤 상수를 따라 갯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혼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상징성과 관련이 있다.

- ① 해순은 바닷사람이 아닌 상수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후에 다시 바다로 돌아올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어머니와 성철은 근원적인 자연의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상수는 이 세계에 동화된 존재로 볼 수 있다.
- ③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는 어머니와 해순의 모습에서 소박하고 진솔한 자연인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
- ④ 해순 모가 해순의 결혼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고향이라는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해순의 탄생과 결혼, 성구의 죽음 등이 나타내는 죽음과 삶의 반복은, 바다가 가진 순환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재가 발생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유독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미세한 탄소 입자들은 공기 중에 부유하며 연기를 형성한다. 연기는 불이 났다는 표지가 되는데 이 점에 착안하여 화재 경보용 연기 감지 장치가 개발되었다. 연기 감지기는 대개 광 감지기를 이용한 광전식과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이온화식으로 나눌 수 있다.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빛의 산란 현상을 이용한다. 빛의 산란이란 빛이 입자의 무리에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광전식 연기 감지기는 빛을 방출하는 발광 다이오드, 빛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를 만드는 광 감지기, 그 밖에 신호 다이오드,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전식 연기 감지기가 작동 중일 때는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된다.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케이스 내부로 스며들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된 빛이 연기에 들어 있는 탄소 입자에 부딪혀서 산란된다. 이 산란된 빛이 광 감지기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서 전기 신호를 만들면, 이 신호를 전자회로에서 처리해 신호 다이오드가 켜지고 벨이 울리게 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거나 서서히 진행되는 화재에 안정 맞춘다.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는 방사능 물질에서 나온 입자를 통해 공기를 이온화하고 여기서 측정되는 전류의 세기를 감지하는 장치이다. 이온화란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는 현상인데 연기가 공기의 이온화를 방해하면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고 연기를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기를 이온화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로 아메리슘 241과 같은 원소가 사용된다. 방사성 동위원소인 아메리슘 241은 붕괴하면서 지속적으로 α 입자를 방출한다. α 입자는 여러 방향으로 방출되며 부딪치는 공기 중의 입자에서 전자를 끌어낸다. 이때 이온화된 일부 입자의 주변에 양극과 음극을

[A] 배열하면 전류가 형성된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의 탄소 입자들이 α 입자가 방출되는 경로에 있다면 α 입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므로 공기의 입자에서 전자를 끌어내는 데 방해받을 것이다. 그 결과 형성되는 전류의 세기는 그에 상응해 감소하고,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여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다.

37. 위 글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빛의 산란 과정
- ② 화재 발생의 조건
- ③ 연기 감지기의 작동 원리
- ④ 불완전 연소와 빛의 산란
- ⑤ 화재경보기의 종류와 용도

38. '광전식 연기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평상시에는 감지기 내부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 ②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속 탄소 입자의 크기를 광 감지기가 감지한다.
- ③ 화재가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많은 양의 빛이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된다.
- ④ 화재가 발생하면 신호 다이오드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경보음을 울린다.
- ⑤ 광 감지기는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빛을 직접 받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39. <보기>는 [A]를 어떤 상황에 비유한 것이다.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아이가 숲 속에서 두 눈을 감은 채 **조약돌**을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조약돌 하나가 **나무** 하나에 부딪힐 때마다 그 아이에게는 **충격음**이 들린다. 그런데 **코끼리** 한 마리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일부 조약돌이 코끼리에 가로막혀 나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코끼리에 가로막힌 조약돌의 수만큼 아이는 충격음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때 아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코끼리를 발견해 낼 것이다.

- ① 아이 - 아메리슘 241
- ② 조약돌 - α 입자
- ③ 나무 - 공기 중의 입자
- ④ 충격음 - 화재 경보
- ⑤ 코끼리 - 탄소 입자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적에 유 소사 두 부인과 더불어 묘해를 기다리더니, 묘해 돌아와 웃으며 족자를 드리거늘, 유 소사 물어 가로되,

㉠ “사 소저의 재주와 용모가 과연 어떠하더뇨?”

묘해 답하여 가로되,

“족자 가운데 사람과 같더이다.”

하고, 더하여 사 급사 부인과 소저의 문답을 자세히 고하니, 공이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사가의 여자 그 재주와 덕행이 과연 범인이 아니로다.”

하고 족자를 걸고 보니 필법이 정묘하여 한 곳도 구차함이 없고 온화하고 유순한 덕행이 글씨에 나타나니 유 소사와 두 부인이 칭찬함을 마지아니하고 글을 보매, 그 글에 하였으되,

‘관음은 옛적 성인이라. 그 덕행이 주 나라 태임·태사’와 같

도다. 관저와 갑담*이 부인의 할 일인즉 외로이 공산에 있음은 본의가 아니라. 고요와 직설*은 세상을 두고 백이와 숙제*는 주려 죽었으니, 도는 같지만 처지가 다름이라. ㉡ 화상을 보건대 흰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도다. 그림을 인하여 그 위인을 대강 알리로다. 옛날 지조 높은 부인네는 머리털을 끊고 목숨을 버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오직 의리를 취하였거늘, 세속 사람들은 부처님 글을 잘 알지 못하고 한갓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인륜에 해로움이 있도다.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외로운 섬, 대 수풀에 바다 물결이 만 리로다. 극진한 공부, 윤회에 벗어나고 어진 덕이 세상에 비치니 억만창생 뉘 아니 공경하리요? 만고에 그 이름이 불생불멸하니 거룩한 그 덕을 붓으로 찬양키 어렵도다.’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 소저는 유 소사의 아들과 혼인하나 모함을 받아 시집에서 쫓겨나 자결하려 하는 때에 한 여승을 만난다.

여승이 황망히 예하고 가로되,

“소승은 동정 군산사에 있더니, 아까 비몽사몽간에 관음이 현몽하사 어진 여자 환난을 만나 갈 바를 모르고 장차 물에 빠지려 하니 빨리 황룡묘로 가서 구원하라 하시매 급히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부인을 만나매 부처님 영험하심이 신기하도소이다.”

사 씨 가로되,

㉢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러니, 스님의 구함을 만나매 실로 감격하나 스님의 암자 멀고 또 귀 암자에 꽤나 될까 하나이다.”

여승이 가로되,

“출가한 사람은 본대 자비를 일삼나니 하물며 부처님의 지도 하심이어늘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고 불들어 언덕에 내려 좌정한 후 여승이 여동과 더불어 배를 저어 타고 갈새, 일진순풍을 만나 순식간에 군산에 다다르매, 산이 동정호에 외로이 있으니 사면이 다 물이요, 여러 봉에 대 수풀이고 인적이 희소하더라.

여승이 배에서 내려 사 씨를 불들어 길을 따라 나아갈새, 열 걸음에 한 번씩 쉬어 암자에 들어가니 암자 이름을 수월암이라 하였는데, 가장 깊숙하고 정결하여 인세 같지 아니하더라. 종일 고생하였으므로 잠이 들어 밤이 밝아 옴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승이 불당을 깨끗이 하고 향을 피우고 경쇠를 치며 부인을 깨워 예불하라 하거늘, 사 씨가 시비와 더불어 법당에 올라 분향하고 배례할새, 눈을 들어 살피고 문득 놀라며 눈물을 머금으니 부처는 다른 이가 아니라 16년 전에 자기가 찬을 지어서 썼던 백의(白衣) 관음화상이라. 여승이 괴이히 여겨 물어 가로되,

㉣ “부인이 어찌 부처의 화상을 보고 슬퍼하시나이까?”

사 씨 가로되,

㉤ “화상 위에 쓴 것이 내 아희 때에 지은 찬이니, 여기에 와보매 자연 비회(悲懷)를 금치 못하리로소이다.”

여승이 크게 놀라 가로되,

“이 말씀 같을진대 부인이 신성한 사 급사 님 소저가 아니십니까? 부인의 용모와 음성이 이목에 익은 줄을 이상히 여겼나이다. 소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부인에게 글 받아온 우화암 묘해로소이다. 소승이 유 소사의 명을 받자와 부인에게 관음찬을 받아 가매 소사 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혼인을 정하시고 소승에게 상을 후하게 주시니, 그때 머물러 혼사를 보려 하다가

스승을 바빠 찾아야 하매 할 수 없이 산에 돌아와 스승을 따라 10년을 수도하였더니, 스승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곳에 와 외진 곳에 암자를 짓고 고요히 공부하며 불상을 뵈을 때마다 부인의 옥설 같은 용모를 생각하더니, 알지 못해라, 부인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시니잇고?”

사 씨 눈물을 흘리고 전후곡절을 일일이 설화하니 묘혜 탄식하여 가로되,

㉠ “세상 일이 본대 이 같은 것이오니, 부인은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부인이 불상을 다시 보니, 외로운 섬 가운데 앉아 기운이 생생하여 완연히 살아있는 듯하고, 찬의 의미가 자기의 유락함*을 그렸는지라. 사 씨 탄식하여 가로되,

㉡ “세상 일이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어찌 하리오!”

하고 이날부터 관음보살에게 분향하여 인아와 다시 만나지라 축원하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태임·태사 : 각각 중국의 문왕과 무왕의 어머니로 높은 덕을 지녔던 인물들.

* 관저와 갈담 : 후비의 덕을 노래한, 『시경』에 나오는 작품.

* 고요와 직설 : 순임금을 보좌했던 세 명의 신하. 고요와 직과 설.

* 백이와 숙제 : 굶어 죽으면서까지 절개를 지켰던 은(殷) 나라의 인물들.

* 유락(流落)함 : 정처 없이 떠돌.

40.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관음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 씨’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② ‘사 씨’에게 닥쳐올 미래의 상황을 암시한다.
- ③ ‘사 씨’와 ‘묘혜’의 만남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 ④ ‘사 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 ⑤ ‘사 씨’와 ‘유 소사’ 집안의 결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유 소사가 사 소저로 하여금 관음찬을 짓게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 ② ㉠ :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기품을 잃지 않으려는 사 씨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③ ㉡ : 묘혜가 아직 사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사 씨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묘혜는 앞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 씨를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기>의 그림을 읽은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 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노니는 한가로운 정서를 담백한 필치로 여백을 살려 그려냈구나.
- ② 버드나무와 그 아래에서 낚시하는 사람의 크기와 구도가 적절하게 안배되어 안정감을 주는군.
- ③ 한적한 곳에서 여유 있게 낚시하는 모습은 물질문명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해.
- ④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정갈한 옷차림으로 낚시를 하고 있으니 인물의 그윽하고 고고한 경지를 알겠구나.
- ⑤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

43. <보기>는 ㉡와 관련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조를 창작해 본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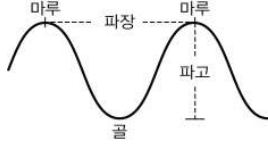
<보 기>

찬바람 불어 일고 흰 서리 내리도다
[(가)]
하늘이 정하였으니 누구를 탓하리오

- ① 서리가 풀리기 전 얼음이 맺히리라
- ② 때 이른 매화꽃은 그 누가 피워 내고
- ③ 그 중에 갈 길 잃은 나그네 신세로다
- ④ 지름길로 찾아온 백발 어느 누가 막으리
- ⑤ 나를 떠난 우리 임도 찬바람에 떨겠구나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생활 주위에는 음파, 광파, 전파 등과 같은 수없이 많은 종류의 파동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파동 현상은 파도일 것이다. 이러한 ㉠ 파도 중 수면파의 모습은 대체로 곡선 파형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수면파는 풍랑, 너울, 연안쇄파로 구분한다. 풍랑은 해역에서 불고 있는 ㉡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도로 파장과 주기가 짧고 대체로 뾰족한 마루와 둥근 골의 모양이지만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중첩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풍랑이 계속 이동하다 보면 파고와 파장이 제각각인 다른 파도를 만나 잔물결은 사라지고, 대신 ㉢ 마루가 둥글고 파장이 긴 파도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너울이라 한다. 너울은 바람이 없어도 멀리까지 전달되며 해안에 가까워지면 파고가 높아지기도 한다. 너울이 해안에 접근하면 ㉣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돌출 지형이나 해저 지형 등의 영향으로 마루가 뾰족해지면서 끝이 부서지는 연안쇄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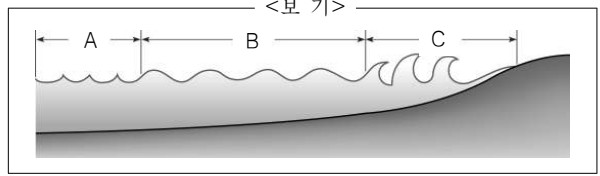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고 있으면 바닷물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 파도를 물 입자의 운동으로 보면, 바닷물 자체는 이동하지 않으며 그 힘만 전달한다. 물 입자는 단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파도는 바로 이 원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파고는 원의 지름에 해당한다. 물 입자의 원운동은 깊이 내려갈수록 작아져서 파장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깊이로 이르면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된다. 그리고 파도가 해안에 가까워지면 흰 ㉥ 거품을 일으키며 부서진다. 파도가 부서지는 이유는 수심이 얕아지면 물 입자가 해저면의 영향을 받아 타원형으로 찌그러지고, 그 타원형의 움직임이 더욱 찌그러지면 원운동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물 입자의 원운동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얕을 때부터 일어난다.

한편 파도는 진행 경로 중에 존재하는 장애물이나 수심의 변화로 인하여 진행 방향이 변한다. 해안에 돌출한 지형이나 섬, 방파제 등이 존재하는 경우 파도는 진행 방향이 휘어져서 장애물 뒤쪽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회절이라 한다. 이때 회절 각이 클수록 회절된 파도의 파고는 낮아진다. 파도가 해안에 접근하면 수심이 얕아지면서 해저 지형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파도가 진행 방향으로 압축되며 속도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해안에 접근하는 파도의 마루선이 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굴절이라 한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도의 높이는 물 입자의 운동으로 생긴 원의 지름에 해당한다.
- ② 바람이 없을 경우에도 너울은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풍랑이 된다.
- ③ 파도가 장애물을 만나 회절할 때 회절 각이 크면 파고는 낮아진다.
- ④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돌출 지형은 연안쇄파 형성의 원인이 된다.
- ⑤ 수심이 파장의 절반보다 얕을 때 물 입자의 원운동이 찌그러지기 시작한다.

45.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 B → C로 파도가 진행하면서 물 입자들은 끊임없이 해안 쪽으로 이동한다.
- ② A → B로 파도가 진행할 때, 잔물결이 사라지면서 파장이 긴 파도만 남는 경우가 있다.
- ③ A 부분에서 발생하는 파도는 대체로 뾰족한 마루와 둥근 골의 모양이다.
- ④ B 부분에 장애물이 있으면 파도가 장애물 옆을 지나면서 진행 방향이 장애물 후면으로 회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⑤ C 부분에서는 해저 지형과의 마찰로 인해 파도의 마루선이 휘며 파도가 부서진다.

46. ㉠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닷가에서는 파도에 밀려 온 해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 ② 파도 위에 떠 있는 공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한다.
- ③ 해안가에서 놀면서 만들어 놓았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 나간다.
- ④ 묶여 두었던 배가 풀리면서 파도를 따라 점차적으로 밀려 나간다.
- ⑤ 밀물과 썰물이 발생할 때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매우 달라진다.

47. ㉡ ~ ㉣를 활용하여 글짓기를 해 보았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점]

<보 기>

자연물과 관련된 많은 어휘는 일차적으로 자연물을 그대로 나타내다가 그 쓰임이 많아지면서 비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① ㉡ :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뱃전을 후려했다.
- ② ㉢ : 바람 때문에 그나마 하나 남은 촛불마저 꺼졌다.
- ③ ㉣ : 그는 뒷산 마루에 걸린 해를 보면서 일어섰다.
- ④ ㉤ : 새벽이 지나면서 수면 위로 서서히 해가 솟아올랐다.
- ⑤ ㉥ : 거품이 빠진 부동산 경기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파생어 형성의 과정에서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런데 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제약이 따르게 된다.

- (1) 구두땀이, 옷걸이, 성냥팔이
(2) 맨눈, 맨몸, 맨손
(3) 길이, 높이, 깊이

(1)의 ‘구두땀이’, ‘옷걸이’, ‘성냥팔이’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 ‘-이’는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만 결합한다는 제약을 갖는다. 이와 같이 파생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결합이 제한되는 것을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의 음운론적 제약이라 부른다. (2)의 ‘맨눈’, ‘맨몸’, ‘맨손’은 어근에 접두사 ‘맨-’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맨-’과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는 대체로 명사이다. ‘맨-’뿐 아니라 ㉠ 대부분의 파생접사들은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만 결합한다. 이를 형태·통사론적 제약이라 부른다. (3)의 ‘길이’, ‘높이’, ‘깊이’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척도명사가 파생된 것이다. ‘짧이’, ‘낮이’, ‘얕이’가 성립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척도명사 파생에서는 긍정적인 의미 내지 가치를 지니는 어근만이 사용된다. 어근의 의미상 특질에 따라 파생어의 형성이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것을 의미론적 제약이라 부른다.

한편, 파생 규칙에 따라 단어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데에 일정한 제약이 작용하기도 한다.

- (4) 길기*, 높이*, 깊이*

위에서 언급한 ‘-이’뿐 아니라 ‘-기’도 ‘뵈기, 굶기, 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척도명사의 파생에 참여한다. 그런데 (4)에서 볼 수 있듯이 ‘길기*, 높이*, 깊이*’가 불가능한 것은 이미 ‘길이, 높이, 깊이’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만들어지더라도, 의미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저지 현상(blocking)이라 부른다.

* : 문법에 맞지 않음을 표시하는 기호.

48. 위 글에 적용된 설명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_____ <보 기> _____
ㄱ. 현상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ㄴ. 현상을 다른 현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ㄷ. 구체적인 예를 통해 현상을 설명한다.
ㄹ.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단어가 파생어이다.
② 파생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결합이 제한되는 것이 음운론적 제약이다.
③ 부정적인 가치 내지 의미를 지닌 어근이 접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 저지 현상이다.
④ 대부분의 파생접사들이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것이 형태·통사론적 제약이다.
⑤ 어근의 의미상 특질에 따라 파생어의 형성이 허용되거나 제약되는 것이 의미론적 제약이다.

50. ㉠과 관련하여 접사와 그 사례를 추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사	사례
① -보	겉보, 울보, 똥똥보
② -꾸러기	말썰꾸러기, 욕심꾸러기, 잠꾸러기
③ 만-	만팔, 만머느리, 만사위
④ -아치	동냥아치, 벼슬아치, 시정아치
⑤ -꽃	꽃고추, 꽃과일, 꽃사랑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